

2일 Market Index			
↓ 코스피	4949.67	↓ 코스닥	1098.36
	(-274.69)		(-51.08)
↑ 금리 (국고채 3년)	3.152	↑ 환율 (원·달러)	1461.40
	(+0.014)		(+21.90)



‘신용 인플레이’ 중·저신용자, 이자 3배 낸다

국민 45% 고신용자, 32% 저신용자
중·저신용자, 대출 2금융권 밀려
금리 평균 연 15%… 1금융 5%대

국민 절반이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 인플레이’가 지속하고 있다. 국민 전반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분별력도 약해지면서 청년·가정주부·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존 신용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대안신용평가’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 ‘신용 인플레이’… ‘신용점수’ 양극화

2일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신용점수가 900~1000점에 해당하는 ‘고신용자’는 2247만명이다. 전체 신용평가대상 국민 5030만명의 44.7%에 해당한다. 직전 년도의 44.3%에서 0.4%포인트(p) 늘었다. 국내 성인 인구가 43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성인 두명 중 한 명은 ‘고신용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국내 성인 인구의 과반이 신용점수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가운데, ‘신용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KCB는 840~899점을 ‘준(準)고신용자’로, 770~839점을 ‘중신용자’로, 그 이하는 ‘저신용



케데헌 ‘골든’, 메그래미 수상… K팝 새역사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OST ‘골든’의 이재(EJAE, 가운데)와 프로듀싱팀이 1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송 리트 포 비주얼 미디어’ 상을 받은 후 프레스룸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L4면> /AP·뉴시스

자’로 구분한다. 작년 하반기 신용평가점수 800점 이하는 2122만명, 750점 이하는 1608만명이다. 국민의 42.4%는 중·저신용자로, 32%는 ‘저신용자’로 분류된 것.

신용점수는 대출·상환 이력,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 등을 활용해 매겨진다. 금융거래 이력이 없

는 사회초년생의 신용점수는 600~700점 전후로,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안정적인 금융거래 이력이 쌓여야 한다. 청년을 비롯해 가정주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금융 이력이 쌓이기 어려운 ‘신파일러(Thin filer)’들은 중·저신용자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신파일러’가 12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 중·저신용 이자비용 ‘3배’

국민 45%는 고신용자로, 32%는 저신용자로 구분되며 신용평가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금융비용 격차도 커졌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노르웨이 수출 북유럽 진출 교두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한 ‘원팀’ 방산외교를 바탕으로 극저온 환경에 최적화한 다연장로켓 ‘천무 플패키지’를 노르웨이에 수출하는 데 성공하며 K-방산의 북유럽 진출을 본격화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총 9억22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플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약 체결을 위해 지난 해부터 전략적인 방산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노르웨이 사업은 당초 미국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와 유럽 KNDS의 유로-폴스(EURO-PULS) 등 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 구도로, 수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가 판세를 바꿨다.

정부와 원팀 ‘방산외교’ 성과 1.3조 ‘천무 플패키지’ 공급계약 “스웨덴·덴마크 등 인접 국가들 한국 방산 검토하는 흐름 형성”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노르웨이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통해 천무의 성능과 양국 간 방산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토레온수우스 산드브크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고위급 소통이 이어지며 수주 여건이 점차 조성됐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한 ‘원팀 세일즈’는 기업 단독으로 제안하기 어려운 장기군수지원과 산업협력까지 포괄하며 노르웨이 정부의 신뢰를 확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스웨덴과 덴마크 등 인접 국가들에서도 한국 방산을 검토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그동안 쌓은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며 “정부와의 ‘원팀’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방산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이제 그만”

오천피 붕괴 ‘블랙 먼데이’

李 대통령, 野 직격 SNS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특히 2일엔 부동산 이슈를 이용해 야당을 직격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보유세 강화’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야당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두고 “백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발언은 역대 민주



당 정부의 발목을 잡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반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주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하며 정권을 흔드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실효적 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유세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보유세와 관련해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KRX, 코스피 5.26% 하락 4949.67
외국인·기관 5.9조 매도 ‘사이드카’

코스피 지수 5000이 무너지며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가 연출됐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26%(274.69포인트) 하락한 4949.6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한 때 4933.58까지 밀려났다.

오후에는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2면> 개미들은 하락장을 틈타 ‘줍줍’에 나섰다.

이날 하루 순매수 규모는 5조7000억 원에 달했다. 하루 순매수로는 사상 최대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3000억 원, 2조6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도 4.44% 떨어진 1098.36으로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가 1.25%하락했고, 대만 가관지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셱지수도 모두 하락했다.

미국의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의 장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매파적 성향에 따라 지명 후 금리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워시 쇼크’에 따라 지난 30일 글로벌 자산 시장은 대거 폭락했다. 이날 금은 11%, 은은 31% 폭락했다. 비트코인 또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만에 8만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지수는 0.36%, 나스닥 종합과 S&P 500지수는 각각 0.94%, 0.43% 하락 마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8원 오른 1464.3원에 오전장을 마감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4.5% ‘잘못한다’ 40.7%
- ▲與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첫 출마 선언

/사진 뉴시스

- ▲與 전현희 서울시장 출마…“오세훈 전시행정 DP 해체”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 ▲김동연 “부동산 대책 반발?…국가 차원 문제에 협조해야”
- ▲이준석 “李정부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 5월9일까지 집 파실건가…시장이 지켜볼 것”